

#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유치원 급식 안전 긴급 점검'

### 식재료 위생관리·보존식 관리 등 '식중독 예방' 30일까지...50인 미만 시설·병설 유치원 점검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최근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9~30일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9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유치원 급식 안전 긴급

점검'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의 여름철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급식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긴급 점검은 급식인원 50인 이상 시설(집단급식소)과 50인 미만 시설로 구분해 동부교육지원

청과 자치구의 협업으로 실시하고, 동부교육지원청은 50인 미만 시설 및 병설유치원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특히 ▲ 보존식 보관 시간(144시간) 준수 여부 ▲ 부적합한 식재료 사용 여부 ▲ 조리부터 배식까지 단계별 위생관리 준수 여부 ▲ 교차오염 방지 여부 ▲ 조리시설 관리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어린이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료 및 급식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광주 용연학교, 5·18의식행사 '길 위의 노래'

학생 참여형 강의·콘서트 형식으로 진행



광주시교육청 Wee스쿨인 용연학교가 교내에서 5·18의식행사 '길 위의 노래'를 지난 10일 실시했다. 12일 용연학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개학 연기로 당일(5월18일)에는 행사 진행이 어려웠지만 늦게나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5·18의식행사 '길 위의 노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학생들은 이

번 행사를 통해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던 선배들의 민주가요를 접했으며,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5·18의식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고, 용연학교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내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 썼다. 전반부에서 학생들은 당시 불렀던 민주가요를 듣고 노래에 얽힌 사연을 서로 나누며 5·18민주화운동의 배경·진

개과정·역사적 의의 등을 살펴봤다. 후반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민중가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류의남 씨를 초청해 5·18민주화운동부터 2017년 촛불혁명을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길 위의 노래들'을 콘서트 형식으로 감상했다. 용연학교 3학년 배수연 학생은 "이번 5·18의식행사를 통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거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과거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있듯 우리로 인해 앞으로의 밝고 깨끗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연학교 운영조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5·18의식행사를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과거 역사적 사건을 현재 자신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 순천대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모의전형'

9월까지 주 3~4회 진행

순천대학교가 최근 광주제일고와 광주 동성고를 방문해 교사와 고3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 및 세부평가 방법, 전년도 입시 결과 분석 등을 담은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모의전형'을 운영으로 호응을 얻었다. 순천대학교 입학본부(본부장 정동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자들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순천대학교 사 용설명서(학생지원 프로그램 및 대학 시설 안내) 소개 ▲2021학년도 대입전형 안내 ▲모의전형 컨설팅 코너 운영 등 현장 입시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좋은 반응을 얻은 모의전형 컨설팅은 ▲전년도 입시 결과



안내 ▲학교 및 학과 안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전략 소개 ▲1:1 모의 면접 및 컨설팅 ▲맞춤형 상담 ▲기타 대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Q&A 등으로 구성하였는데, 약 2시간에 걸쳐 입학사정관과 학생 간에 쌍방향 피드백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의전형 컨설팅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은 "전년도 면접 질문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하

고 컨설팅을 통해 실전에서 필요한 태도를 배우면서 면접을 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며 컨설팅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순천대학교는 오는 9월까지 신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 3~4회에 걸쳐 찾아가는 입시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비대면 대입설명회 및 모의면접도 준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교육청, '청렴문화 정착 자율적 자정운동'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영상회의 '청렴 실현' 다짐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9일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영상회의를 갖고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자발적 자정

운동을 통해 청렴 전남교육 실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호 행정국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영상회의에서 도교육청은 관급자제 구매 방법 개선 및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청렴 실현 및 자정운동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과장들은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자정 운동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결의했다. 김준호 행정국장은 "지금 우리는 새롭고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에 서 있다."면서 "청렴이 더 이상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화, 구조화되어 청렴문화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 광주교육청, 시·청·광주경찰과 학원 합동 점검

장휘국 교육감, "학원 관계자들 적극적 동참" 요청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청·동구청·광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10개조 60명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고시학원 밀집지역 학원을 중심으로 11~12일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학원에 대해 광주시와 함께 방역 및 기초 학원 방역 대응반을 구성해 학원 방역 지도·점검 및 현황 관리 공유 등 학원 방역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주말 기간 동안 합동점검에서 학원 대상 집합 제한 행정 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최근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광주고시학원 주변 고시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말 기간 동안 총 158개소를 점검 완료했고, 방역 준수 위반 학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작성 비치),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과 방

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실시 등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휴원과 운영 제한에 있어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며 "우리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